

2019

9.2 -

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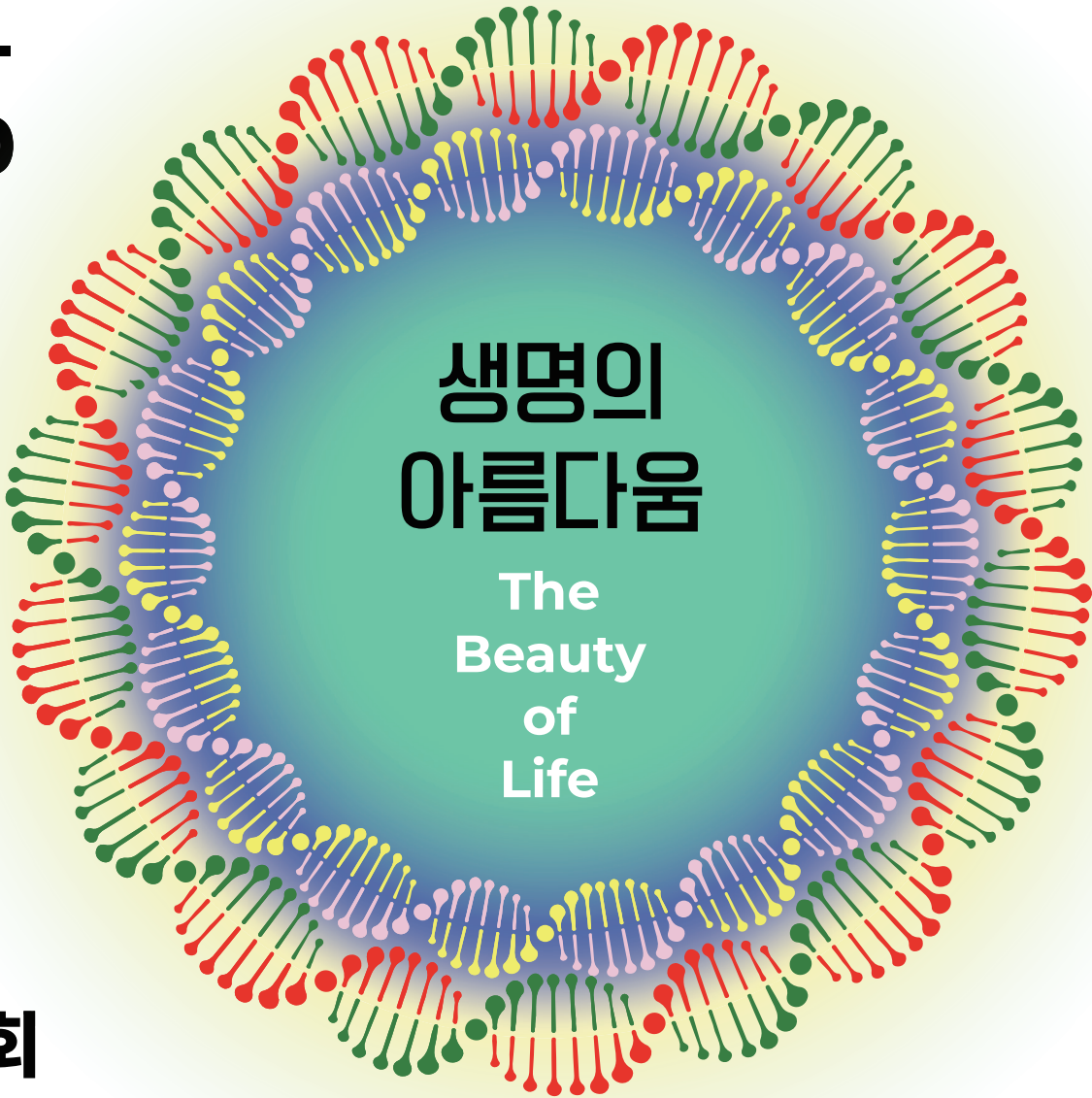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의생명융합연구소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Center
for Medical Convergenc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서울대학교미술관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



제 7회 바이오아트 공모전

공모주제

생명의 아름다움

우리 주위에 감춰져 있던 혹은 오랫동안 계속 봐 왔으나
인지하지 못했던 생명의 아름다움(The Beauty of Life)을
전세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응모분야

디지털사진, 현미경사진, 컴퓨터그래픽, 영상

참가대상

개인 및 단체(최대 4인), 국내/국외

상금

대상	상장 및 상금 300만원	1작품
우수상	상장 및 상금 100만원	3작품
장려상	상장 및 상금 20만원	10작품
입선	상장	20작품

참가신청

온라인접수

<https://bio-art.org>

접수기간

2019.09.02(월) - 09.30(월)

전시기간

2019.11.10(일) - 11.14(목)

서울시청 B1 시민청갤러리

참고사항

홈페이지

<https://bio-art.org>

문의

바이오아트사무국

bioart@biocon.snu.ac.kr

주최 (재)의약바이오컨버전스연구단

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대학교미술관

The 7th BIO-ART CONTEST

생명의 아름다움 The Beauty of Life

개화사막(Desierto Florido)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미국 캘리포니아 데스벨리보다 50배 이상 건조한 칠레 ‘아타카막’ 사막. 아무것도 살아있지 않을 것 같은 사막에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면 200여종의 꽃이 만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떤 생명체도 절대로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수년간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견뎌낸 이름 모를 씨앗들의 강인한 생명력이 우리 모두를 감탄하게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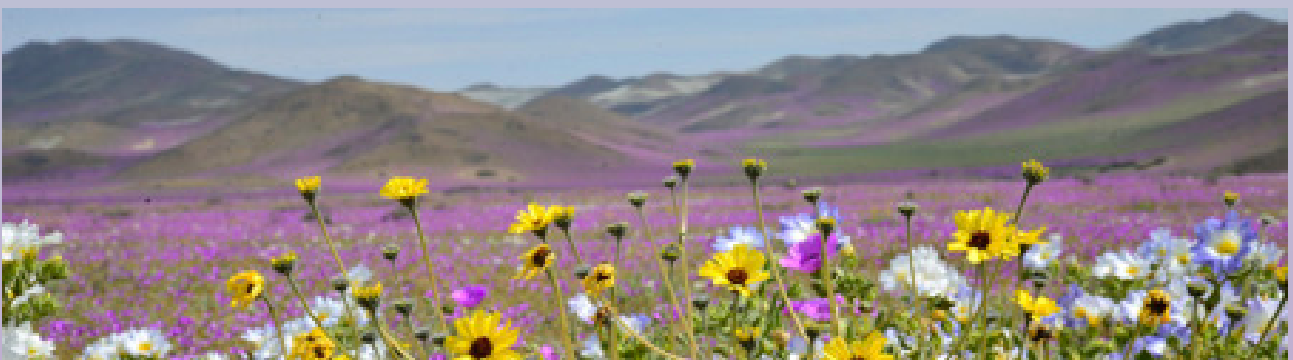
하지만 이렇듯 강한 생명력을 가진 위대한 자연이 인류에 의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과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밀렵 등을 통해 수십 수백 년간 지구에서 생존해 오던 생명들이 멸종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제 우리 후손들은 반딧불의 아름다움을 책으로만 기억하게 될 것 입니다.

그럼 인간 사회는 어떻습니까? 성형 중독을 불러 일으키는 외모지상주의와 생명 경시 풍조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생명 그 자체의 아름다움 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 들에만 집중하다 보니 생기는 현상입니다.

아스팔트 작은 틈에서 차디찬 겨울을 이겨내고 싹을 틔우는 잡초, 장기 기증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선사하고 영면한 뇌사자, 손끝 감각으로 희망을 그리는 시각장애인 화가.

생명·생명 나눔·장애극복 등 생명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근본적인 아름다움을 찾고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점차 사라져가는 생명 존중 문화를 사회 전반에 조성하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주위에 감춰져 있던 혹은 오랫동안 계속 봐 왔으나 인지하지 못했던 생명의 아름다움 (The Beauty of Life)을 전세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이오아트 공모전 BIOART CONTEST

바이오아트(Bioart)란 무엇인가요?

바이오(Bio)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비오스(Bios)이며, 생명과 생물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바이오아트(Bioart)란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연관된 예술 작품을 뜻합니다.

바이오아트 공모전이란?

서울대학교 의약바이오컨버전스연구단이 주최하는 바이오아트 공모전은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한 요즘 생명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이를 형상화해 과학 연구자와 일반대중이 이를 함께 공유 하는 과학예술문화 융합 행사입니다.

2013년 첫 발걸음을 내딛은 바이오아트 공모전은 2015년 국제대회로 확대되었으며, 현재까지 전 세계 약 2,300여명이 참가해 생명의 위대함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또는 너무 당연하다는 이유로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는데 너무도 소홀해 왔습니다.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는 이 같은 무관심이 낳은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생명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찾는 일은 그 동안 잠시 잊었던 생명의 고귀함,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금 찾아가는 과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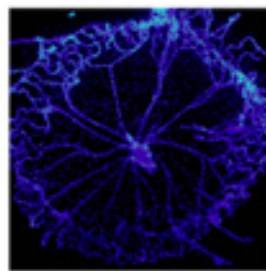
역대 수상작



2018년 또 다른 생명/임지향



2017년 Anatomy / Kayankv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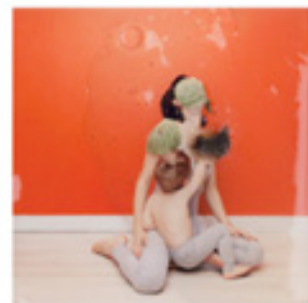
2014년 Across the Universe / 박효진



2016년 파괴와 인간의 생존/ 고종근



2013년 달빛 저장고/ 손효정



2015년 Bios / Roberta Trentin